



제 14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한우부문 장려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지 일 진

경기도 화성시 매항리
대지목장 대표



꾸준한 관찰만이 성공비결! 축산 전문 달인이 되다

고객홍보팀

이름 그대로 매화 향기가 그윽할 것 같은 매항리. 이곳엔 <대지목장>이 있다. 이곳 대표는 매항리가 고향인 농부로써 농사일만 하다가 1995년에 축산의 길을 선택한 <대지목장>의 대표인 지일진 대표가 있다. 소 9마리로 시작하여 현재 15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그의 하루 일상을 둘러보고 그만의 축산 노하우를 살펴보자.



04:30

한 마리 한 마리를 관찰과 관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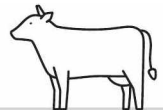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의 하루는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한다. 하루 3시간이나 4시간만 잠을 잔다는 지일진 대표는 부지런쟁이. 그는 하루 두 번 축사를 순회한다. 소 급여를 줄 때는 긴 시간을 소와 교감하며 양을 조절하고, 소의 상태를 보며 건강을 체크하는 등 한 마리 한 마리를 관심으로 살핀다. 번식우에서 5년 전 비육우로 전환하여 지금은 하루에 두 번만 급여를 한다. “소는 생리적으로 12시간의 간격을 두어 급여를 해야 사료를 충분히 먹고 몸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의 연구 결과이고 그만의 노하우다.



12:00

TMF 발효사료를 위한 부산물 수거

농가에서 부산물을 직접 수거하여 효모균과 물을 적당량 첨가하고, 10일~15일간 자연발효하여 완전혼합발효사료인 TMF 사료를 만든다. 이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터득한 그만의 노하우로 만든 사료이다. 곰팡이 제거를 위하여 발효가 중요하다는 지일진 대표. 사료와 TMF 발효사료를 따로따로 급여하고 있다. TMF사료는 소의 위에서 더 잘 흡수되고 소화가 잘되며, 분뇨의 냄새와 수분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크다. 그래서인지 소 축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축사는 청결하고 분뇨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향긋한 곡물 냄새가 났다. 지일진 대표는 축사 분뇨청소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축사 주변청소는 소 먹이를 줄 때마다 수시로 하는 부지런쟁이이다.



16:00

일주일 한번 제한급여와 한 달에 두 번 절식

지일진 대표만의 원칙이 있다. 농장을 자주 드니다들면 소들에게 스트레스다. 그래서 그는 소 급여 시간 외에는 소들에게도 휴식 시간을 준다. “일주일에 한 번 제한급여를 하고 한 달에 두 번정도 절식을 시킵니다. 소도 위를 비워줘야 건강합니다. 위가 발달한 소가 등급이 잘 나오며 최장이 길어야 좋은 소입니다.” 그가 축산을 시작 할 때는 한우사육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이 많지 않아 애를 먹었다. 축산전공이 아닌 그는 여기서 저기 성공한 축산인들을 찾아가 어렵게 하나하나 배우고 실패를 거듭하며 노하우를 터득하고 지식을 쌓았다. 그래서인지 그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경영 초보자들이나 배우고자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성공 노하우와 지식을 전파하고 싶다고 한다. 미래에도 한우는 전망이 있다고 자부하는 그는 한우 500두를 목표로 오늘도 열심히 축사 일에 전념한다. ☺

